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안○○ (70-1), 청소미화원
주거 인천 서구 완정로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검 사 김성훈(기소), 이완희, 김현우(각 공판)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김○○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47고○○호 쉐트라 승용차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위 김○○과 김○○의 친구 최○○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녹음장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녹음기가 설치된 47고○○호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김○○과 최○○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처인 김○○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 김○○과 최○○ 사이의 대화는 위 법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판단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¹⁾

피고인은 피해자 김○○과의 이혼소송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녹음기를 설치한 목적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_____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사 신세아 _____

관사 이슬기 _____